



#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 여러 나라에서 축전을 보내여왔다

평양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

김정일 각하

각하  
나는 경사스러운 각하의 탄생일에 즈음하여 만마련방공화국 인민과 나자신의 이름으로 각하께 그리고 각하를 통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민에게 가장 뜨거운 축하와 충심으로 되는 축원을 드립니다.

나는 이 기회에 각하께서 건강하시고 사업에서 성과를 거두실것과 아울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민에게 끊임없는 진보와 번영이 있을것을 가장 충심으로 축원합니다.

만마련방공화국 국가평화발전리사회 위원장

대장 탄스웨

2011년 2월 9일

네이비도

평양

조선로동당 총비서 이신

존경하는 김정일동지께

존경하는 동지

저는 조선인민의 민족최대의 명절인 당신의 탄생일에 즈음하여 메히꼬로동당의 전체 당원들과 저자신의 이름으로 당신께 가장 열렬한 축하를 드리는 영광을 가집니다.

당신께서 조선혁명의 성과 백두산에서 탄생하신것은 전체 조선민족과 인민대중의 자주위업수행을 위하여 싸운 전신류에게 있어서 대대통용이었습니다.

위대한 선군령장이신 당신께서는 선군혁명령도로 미제국주의자들과 그 추종세력들의 반공화국 압살공세를 지지시켜 존엄과 자주권을 굳건히 수호하였습니다.

저는 당신의 선군혁명령도로 조선인민이 새해 공동사업을 높이 밟들고 올해에 다시 한번 경공업에 박차를 가하여 인민생활향상과 대상대국건설에서 결정적전환을 일으키며 나라의 자주통일과 세계자주화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서 커다란 성과를 이룩하라고 확신합니다.

저는 경사스러운 이 기회에 당신께서 건강하시고 행복하실것과 사회주의조선의 치지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부강조국건설원원을 풀피우기 위한 조선로동당과 조선인민의 전면봉세, 전면돌파전을 진두지휘하시는 책임적인 사업에서 커다란 성과를 거두시기를 축원합니다.

경의를 드립니다.

메히꼬로동당 전국조정위원회 조정자

알베르트 아나야 구티에레스

2011년 2월 4일

메히꼬

평양

조선로동당 총비서 이신

김정일동지께

존경하는 김정일동지

저는 로씨야연방공산당 중앙위원회 상무위원회와 저자신의 이름으로 탄생일을 맞으시는 당신께 축심으로 되는 축하를 드립니다.

당신의 령도밑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모든 분야는 힘있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귀국의 세로운 평화체제들은 조선반도와 전반적인 아시아지역에서의 평화와 안정을 이루는데서 특별한 의의를 가집니다.

존경하는 김정일동지

저는 당신께서 조선인민의 복리를 위한 사업에서 새로운 성과들을 거두실것을 축원합니다.

경의를 표합니다.

로씨야연방공산당 중앙위원회 위원장

게. 아. 쥬가노브

2011년 2월 9일

모스크바

평양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영남동지

가이아나협동공화국 대통령에게 축전을 보내였다

조지자운

가이아나협동공화국 대통령

바라트 자그데오 각하

나는 가이아나협동공화국으로 41회에 즈음하여 당신과 귀국정부와 인민에게 열렬한 축하를 보내면서 나라의 발전과 번영을 위한 당신의 사업에서 보다 큰 성과가 있을것을 충심으로 축원합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영남

주제 100 (2011) 년 2월 23일

평양

## 부강조국건설사와 더불어 길이 빛나리

남홍청년화학련합기업소에 깃든 령도의 자욱

서부지구의 대화학공업기지인 남홍청년화학련합기업소에 대고조의 열풍이 세차게 휘몰아쳤습니다.

드넓은 구내의 이르는 곳마다에 은백색의 합성립들과 탕크들이 키높이 솟아있고 무수한 배관들이 여러 생산공정들에 이어주며 그물처럼 뿐어나간 대화학공업기지.

얼마전 우리는 대고조의 기상이나 해치는 기업으로 여러 곳을 돌아보면서 지난날 갈대만이 무성하던 남홍땅에 줄지의 화학공업기지를 일떠세워주신 철세의 위인들의 불멸의 령도업적을 가슴뜨겁게 새겨안게 되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와 세심한 보살핌속에서 이 협력기업소는 종합적인 대화학공업기지로 일떠섰습니다."

몇 해 전 남홍청년화학련합기업소를 찾으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연혁소개에서 기업소가 걸어온 자랑스러운 도장을 들여다보면서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고마움의 화학공업기지가 일떠설에 대하여 감길이 추억하시였다.

돌이켜보면 나라의 화학공업발전에 크게 이바지하며 발전하여온 기업소연 혁사의 갈파마다에 절세의 위인들의 불멸의 령도자우이 얼마나 뜨겁게 새겨져있는가.

지금도 우리의 눈앞에는 주제 57 (1968)년 10월 어버이수령님께서 몸소 현지에 나오시어 기업소의 터전을 잡아주시던 그날의 승荫한 모습이 뜨겁게 새겨져있다.

아직은 김조차 벌써 없는 협한 걸을 오랜 시간 걸으시며 점심시간이 지나도록 대규모의 화학공업기지건설과 관련한 쿠위 가르침을 주신 어버이수령님.

나라의 경공업발전과 인민생활향상에 서 화학공업이 차지하는 위치의 중요성을 깊이 통찰하시고 이미 동해지구에

## 사랑과 믿음으로 이어진 선군령장의 전선길

올해 공동사업의 전투적호소를 심장 깊이 새겨안은 인민군장들은 혁명의 주력군단과 조국의 방선을 철벽으로 지키며 경애하는 장군님의 강성대국건설구상을 기어이 실현하려는 우리 인민의 대고조군을 무적의 총대로 굳건히 담보할 불리는 열의에 넘쳐있다.

백두산혁명군의 이 혁명적기세와 열의가 무엇으로 하여 드높고 세상천지를 드롱드를 울리면서 강렬히 분출되는것인가.

이에 대하여 생각할 때 우리는 선군장정의 길에서 인민군장인들을 나의 아들딸이라고 하시며 그들이 있는 곳이라면 그 어디에라도 찾아가서 주실수 있는 온갖 응성을 다 베풀어주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에 대한 열화같은 흡모의 정을 금할수 없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나는 총섭은 군인들을 단순히 최고사령관의 전사라는 군직관계에 서가 아니라 사상과 뜻을 같이하는 혁명동지로 보고 그들을 끌끌이 사람입니다."

백승의 역사를 떠올린 조선인민군의 영웅적로정은 경애하는 장군님의 병사들에 대한 사랑의 전설들로 감동깊게 수놓아지게 있다.

주제 84 (1995)년 1월 1일 이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물려주신 귀중한 유산인 사회주의 내 조국을 선군으로 굳건히 지키고 빛내여가길 철석의 의지를 안으시고 인민군대의 한 달박술중대를 찾으셨습니다.

다정한 윤성으로 최전연고지를 지키고 있는 군인들의 수고를 뜨겁게 헤아려주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그들이 입은 솜옷에 눈길을 돌리시였다. 그 솜옷은 초소군인들이 누구보다 친바람을 많이 맞는것을 고려하여 비교적 솜을 두루게 넣어 만든것이었다. 그런데

손수 만자 시달린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솜옷이 얇다고 걱정이었어.

고지에 이르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전투준비와 관련한 귀중한 가르침을 주시고 근무중에 있는 두 병사를 만나시였다.

다정한 윤성으로 최전연고지를 지키고 있는 군인들의 수고를 뜨겁게 헤아려주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그들이 입은 솜옷에 눈길을 돌리시였다. 그 솜옷은 초소군인들이 누구보다 친바람을 많이 맞는것을 고려하여 비교적 솜을 두루게 넣어 만든것이었다. 그런데

손수 만자 시달린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솜옷이 얇다고 걱정이었어.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그에게

손수 만자 시달린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솜옷이 얇다고 걱정이었어.

그리고는 춤지 않는가, 비누는 제대로 꽂혀지는가, 솜옷은 누번 솜옷은 누번 자리로 바람이 스며들것이라고 놀라시며 안색을 흐리시는것이었다.

그 자리로 바람이 스며들면 얼마나 스며들겠는가.

같이 훈련새도 맡고 포연이 자욱한 전투초소들에서 전사들과 함께 운명을 같이하는 최고사령관이 될것입니다라고 미니마디에 자신의 드림없는 신념을 담아 말씀하시였다.

옛 병서에 「자식을 사랑하듯 군사들을 대하라. 그러면 군사들은 그대와 더불어 죽음도 함께 할것이다.」라는 글이 있다. 하지만 세계 그 어느 나라 병사들은 자기들의 신발까지 만져 보시며 밤이 시릴세와 깊이 관심하시는 계를 명령과 복종의 관계를 초월하여 부모와 자식간의 혈연적관계로, 한전호에서 생사를 같이하는 참다운 동지적관계로 되게 한 사실이 기록된 것이다.

두 병사는 자기들의 신발까지 만져 보시며 밤이 시릴세와 깊이 관심하시는 계를 명령과 복종의 관계를 초월하여

부모와 자식간의 혈연적관계로 되게 한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그에게

손수 만자 시달린 경

# 사상도 기술도 문화도 주체의 요구대로!

## 사상혁명을 앞세우면 모든 일이 잘된다

특장지구 탄광련합기업소 당위원회에서

사상혁명을 3대혁명붉은기념사업으로서 최근 몇해 동안에 기업소적으로 9개의 단위가 3대 혁명붉은기념사업을 행하기 위해 한 단장지구탄광련합기업소 당위원회 일군들의 사업이 주목된다.

위대한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가 늘 말하는것이자 만혁명투쟁에서나 건설사업

에서 기본은 사람들의 사상이며 따라서 당조직들은

사람들의 사상을 틀어쥐고

대중을 발동시켜야 한다』

지금으로부터 4년전 어느날,

련합기업소당위회 책임비서로

사업하게 된 정영호동무의 미운은, 개운치 못했다. 선군시대의 요구에 비해 볼 때 단위의 뒤떨어진 면모와 생산실적이 그의 마음을 무겁게 하였던것이다.

(무슨 일부부터 먼저 시작해야 하는가.)

방도를 찾아 모대기는 그의 머리에 섬광처럼 떠오른 것은

사상혁명을 기본으로

틀어쥐고 대중을 힘 있게 밀고나가야 한다고 하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가르침이 있다.

그는 어려울 때 일수록 단위 사업을 추켜세우기 위한 방도를 3대 혁명붉은기념운동을 빌기 위해 한 단장지구탄광련합기업소 당위원회 일군들과 함께 준비시키기 위해 사업에 신속적인 힘을 넣을 결심을 하였다.

기업소구내를 위대성교장장소로 꾸릴 것을 밟기 한 당 위원회는 이 사업을 행정경제 일군들과 힘을 합쳐 토이 크게

모자이크벽화

『백두산 3대장군 고향집』을

건립할 때였다.

구내를 밟듯이 시도록 밟으

며 위치를 확정한 당위원회 일

군들은 벽화를 최상의 수준에 좋은 위치에 모자이크벽화

『백두산 3대장군 고향집』이

한 달 낮짓한 기간에 홀륭히 건

립되게 되었다.

련합기업소당위회 일군들은

이런 일본세로 대중을 이끌어

나섰던 일군들은 놀라워하지

않을 수 없었다.

책임비서와 당위원회

원회 비서 강철석동무는 비록

3대 혁명붉은기념운동을 힘

있게 밀고나가야 한다고 하신

마음을 무겁게 하였던것이다.

(무슨 일부부터 먼저 시작해야 하는가.)

방도를 찾아 모대기는 그의

머리에 섬광처럼 떠오른 것은

사상혁명을 기본으로

틀어쥐고 대중을 힘 있게 밀고나가야 한다고 하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가르침이 있다.

그는 어려울 때 일수록 단위

사업을 추켜세우기 위한 방도

를 3대 혁명붉은기념운동을

빌기 위해 한 단장지구탄광

련합기업소 당위원회 책임

비서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방법론을 세우는 것은 어떤 사업에서나 반드시 지켜야 할 원칙의 하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희천공업전문학교 3대 혁명

붉은기념운동 결의 목표에는

올해에 실습공장을 본보기 단위로 만든다는 내용이 있다.

이와 관련하여 초급당비서

조선일동무는 하나의 문제에 깊은 주목을 둘러싸게 되었다.

그것은 이 단위에서 다른 모든 사업은 비교적 잘 진척되는데 대중체육사업은 응당한 수준에서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 공장은 생산문화, 생활문화는 물론 군중문화에 활동도

비교적 잘되는 단위이다. 그런

데 왜서인지 대중체육활동민은 활발하게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그 원인을 알기 위해 지난 1월 초급당일군은 실습공장의 일군들과 로동자들 속으로 들어갔다.

그는 우선 대중체육활동의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힘을 넣었다.

기획을 마련한 그는 가공 1

작업반의 로동자들과 마주쳤다.

그리고 제일 인기 있는 종

목인 축구의 발전력사로부터

현대체육경기들의 발전동향파

제3대 혁명붉은기념운동을 힘

있게 밀고나가야 한다고 하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가르침이 있다.

대중체육에 대한 일군들의 관심, 바로 여기에 문제가 있다.

그리고 대중체육에 대한

이렇게 말하였다.

『구조물의 양생기일이자 공

사숙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 모자이크벽화를

하루빨리 건립하여 일군들과

결사옹위투사로 준비시키기 위

해 사업에 안하고 살도록 합시다.』

모자이크벽화건설팀에 비쳐가

는 일군들의 진정이 얼마나 뜨

거운것인가를 다시금 알게 된

기업소의 종업원들은 물론 가

두인민반원들까지 떨쳐나섰다.

백두산 3대장군의 고향집을

가슴에 안하고 살도록 합시다.』

모자이크벽화건설팀에 비쳐가

는 일군들의 진정이 얼마나 뜨

거운것인가를 다시금 알게 된

기업소의 종업원들은 물론 가

두인민반원들까지 떨쳐나섰다.

백두산 3대장군의 고향집을

가슴에 안하고 살도록 합시다.』

모자이크벽화건설팀에 비쳐가

는 일군들의 진정이 얼마나 뜨

거운것인가를 다시금 알게 된

기업소의 종업원들은 물론 가

두인민반원들까지 떨쳐나섰다.

백두산 3대장군의 고향집을

가슴에 안하고 살도록 합시다.』

모자이크벽화건설팀에 비쳐가

는 일군들의 진정이 얼마나 뜨

거운것인가를 다시금 알게 된

기업소의 종업원들은 물론 가

두인민반원들까지 떨쳐나섰다.

백두산 3대장군의 고향집을

가슴에 안하고 살도록 합시다.』

모자이크벽화건설팀에 비쳐가

는 일군들의 진정이 얼마나 뜨

거운것인가를 다시금 알게 된

기업소의 종업원들은 물론 가

두인민반원들까지 떨쳐나섰다.

백두산 3대장군의 고향집을

가슴에 안하고 살도록 합시다.』

모자이크벽화건설팀에 비쳐가

는 일군들의 진정이 얼마나 뜨

거운것인가를 다시금 알게 된

기업소의 종업원들은 물론 가

두인민반원들까지 떨쳐나섰다.

백두산 3대장군의 고향집을

가슴에 안하고 살도록 합시다.』

모자이크벽화건설팀에 비쳐가

는 일군들의 진정이 얼마나 뜨

거운것인가를 다시금 알게 된

기업소의 종업원들은 물론 가

두인민반원들까지 떨쳐나섰다.

백두산 3대장군의 고향집을

가슴에 안하고 살도록 합시다.』

모자이크벽화건설팀에 비쳐가

는 일군들의 진정이 얼마나 뜨

거운것인가를 다시금 알게 된

기업소의 종업원들은 물론 가

두인민반원들까지 떨쳐나섰다.

백두산 3대장군의 고향집을

가슴에 안하고 살도록 합시다.』

모자이크벽화건설팀에 비쳐가

는 일군들의 진정이 얼마나 뜨

거운것인가를 다시금 알게 된

기업소의 종업원들은 물론 가

두인민반원들까지 떨쳐나섰다.

백두산 3대장군의 고향집을

가슴에 안하고 살도록 합시다.』

모자이크벽화건설팀에 비쳐가

는 일군들의 진정이 얼마나 뜨

거운것인가를 다시금 알게 된

기업소의 종업원들은 물론 가

두인민반원들까지 떨쳐나섰다.

백두산 3대장군의 고향집을

가슴에 안하고 살도록 합시다.』

모자이크벽화건설팀에 비쳐가

는 일군들의 진정이 얼마나 뜨

거운것인가를 다시금 알게 된

기업소의 종업원들은 물론 가

두인민반원들까지 떨쳐나섰다.

백두산 3대장군의 고향집을

가슴에 안하고 살도록 합시다.』

모자이크벽화건설팀에 비쳐가

는 일군들의 진정이 얼마나 뜨

# 장하다! 대고조시대의 참된 공민들

사회주의농촌으로 자원진출한

바로 어제 상업성에서는 사회주의농촌으로 자원진출하는 성아래단위로 노동자 김정남동무와 그의 가족들에 대한 뜻깊은 환송모임이 있었다.

상업성의 정무원들과 아래단위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당의 농촌건설구상을 현실로 꽂아올리고자 힘쓰고 있는 지향과 포부를 알고 함께 경남도 대성군으로 자원진출하는 김정남동무와 그의 가족을 드겁게 바라워주었다. 그러면 서 자기들도 이들의 모범을 본 받아 강성대국건설을 위한 투쟁에 한물 다 바칠 맹세를 굳게 다지었다.

위대한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조국을 사랑하지 않고 조국을 위하여 투쟁하지 않으면서 조국에 이바지한 것이 없는 사람은 조국에 대하여 말할수

뿐

펼치는 수도 평양을 향해 기세 좋게 달렸다. 푸르러 가는 들판이 차창에 언뜻언뜻 비쳤다. 거기에 눈길을 끌은 청년과 함께 있는 사람이다. 덕성여자는 덕성여자를 찾는 누이네 집에 갔다가 평양으로 돌아가는 김정남동무였다.

『여보, 무슨 생각을 그렇게 하세요?』

곁에서 안해가 물었으나 그는

입을 꾹 다물고 있었을뿐이었다.

남편이 웨어 파파한 성미인 지라 한금순동무는 더 캐어문지 않았다. 남편의 눈빛을 보는 한 사람에 있었다. 덕성여자는 눈을 끌어내리며 미소를 부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문득 시누이네 집에 갔을 때의 일이 떠올랐다.

…

그들이 불쑥 나타나자 뜨락

에서 새끼꼬에게 여념이 없던 시누이는 몹시 놀라와하였다.

『아니, 가을에 오라고 했는데 왜 비쁜 봄철에 왔느냐?』

형제라고는 나이차이가 심한 남동생 하나뿐인 누이는 동생네 집일에 이모저모 관심을 써고 있었다.

『봄이 걸어 왔어요. 모내기철의 비쁜 일손을 들판과 밭에 예요.』

김정남동무는 이리며 누이가 벌써 놓은 일감을 손에 잡았다.

『하긴 당창건 65돐을 맞는 뜻깊은 축제의 공동사찰을 받아

안고 은농장 영농전투로 부글부글 끊고 있다. 년로보장을 받은 사람들은 분조를 따로 뜯고

기원전투를 벌리고자. 너의 부부랑 나랑은 그 분조성원임에 난 오늘 몸이 불편해서 오전작업에는 참가하지 못했구나?』

누이의 얼굴에는 안타까움이 실려 있었다.

『제가 도울 일은 없을까요?』

김정남동무는 일손을 부지런히 놓려며 물었다.

『왜 없겠니? 농장기계화작업반에서 기술혁신을 한다는데 거기에 한번 가보려.』

수십년간 자동차운전사로 일



## 2월의 명절에 즐음하여

팔레스티나 특명전권대사연회

위대한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탄생일에 즐음하여 이스마일아흐마드 무함마드 하산 주조팔레스티나국가 특명전권대사가 23일 대사관에서 연회를 마련하였다.

연회에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양형석동지와 김웅진 교수위원회 위원장, 현상주 직총장동지위원회 위원장, 박근평, 김형준 등 판계부문 일군들이 초대되었다.

팔레스티나국가대사관 성원들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연회에서는 이스마일아흐마드 무함마드 하산 특명전권대사가 연설하였다.

그는 위대한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탄생일에 즐음하여 그는 팔레스티나의 벗들이 2월의 명절을 뜻깊게 경축하는

【조선중앙통신】

축산과 농산의 순환식 생 산 체계에 관한

과학토론회

진행

또한 과학기술발표회에서

는 60여건의 과학연구 및

기술혁신성과들이 발표되었으며 세계전시회에 출품되며

온 세계 새제품들이 출품되며 참가자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참가자들의 깊은 관심속에 과학기술강의도 진행되었다.

이 기간 과학기술보급과 새

기술교류사업이 활발히 벌어졌다.

과학토론회와 발표회, 전시회 등은 순환식 생 산 체계를 확립하고 축산과 농산을 다같이 발전시키면서 이룩된 성과와 경험이 널리 일반화하며 이 사업에서 이룩된 성과를 계기로 되었다.

그들은 위대한장군님께서는

화학肥料을 창조하시여 순

순환식 생 산 체계의 생활력을 실천으로 확증하여 주시였다고 하면

이 사업에서 이룩된 성과를

동의 제목으로 농업성 부상 페

를 구체적으로 소개하였다.

로 써야련방대사관성원들

해방탑과 소련군렬사들의 묘에 화환 진정

화환진정에는 월례회 허시년 조선로당원회, 알렉세이 바르누코프무관을 비롯한 로씨야방대사관 성원들이 23일 해방탑에 화환을 전정하였다.

해방탑에는 조선인민군 명예위장들이 서있었다.

기네인민련합총비서

우리나라 특명전권대사를 만났다

【평양 2월 23일】 조선중앙통신】 조국호수는 12일 리경선기에게 부탁하였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김정일 각하의 세련된 선

군정치로 조선을 그처럼 복

잡한 국제정세속에서도 자

주, 자립, 자위의 강국으로

할 것이다.

## 상업성 아래단위로 자원진출한

김정남동무와 그의 가족에 대한 이야기

사회주의농촌으로 자원진출하는 성아래단위로 노동자 김정남동무와 그의 가족들에 대한 뜻깊은 환송모임이 있었다.

상업성의 정무원들과 아래단위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당의 농촌건설구상을 현실로 꽂아올리고자 힘쓰고 있는 지향과 포부를 알고 함께 경남도 대성군으로 자원진출하는 김정남동무와 그의 가족을 드겁게 바라워주었다. 그러면 서 자기들도 이들의 모범을 본 받아 강성대국건설을 위한 투쟁에 한물 다 바칠 맹세를 굳게 다지었다.

위대한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조국을 사랑하지 않고 조국을 위하여 투쟁하지 않으면서 조국에 이바지한 것이 없는 사람은 조국에 대하여 말할수

뿐

펼치는 수도 평양을 향해 기세 좋게 달렸다. 푸르러 가는 들판이 차창에 언뜻언뜻 비쳤다. 거기에 눈길을 끌은 청년과 함께 있는 사람이다. 덕성여자는 덕성여자를 찾는 누이네 집에 갔다가 평양으로 돌아가는 김정남동무였다.

『여보, 무슨 생각을 그렇게 하세요?』

곁에서 안해가 물었으나 그는

입을 꾹 다물고 있었을뿐이었다.

남편이 웨어 파파한 성미인 지라 한금순동무는 더 캐어문지 않았다. 남편의 눈빛을 보는 한 사람에 있었다. 덕성여자는 눈을 끌어내리며 미소를 부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문득 시누이네 집에 갔을 때의 일이 떠올랐다.

…

그들이 불쑥 나타나자 뜨락

에서 새끼꼬에게 여념이 없던 시누이는 몹시 놀라와하였다.

『아니, 가을에 오라고 했는데 왜 비쁜 봄철에 왔느냐?』

(아마 인차 돌아오지 않을 거야.)

성큼 대문밖으로 나가는 남

편에 새끼꼬에게 여념이 없던 시누이는 한금순동무는 생각하였다.

『전 계례 텔레비죤화면을 통

하여 포전길을 걸으시는

아버지 한금순동무의 모습을 또다시

보았습니다. 그때마다

많은 생각을 하셨습니다.

그날 텔레차에서 내려 시누이네

가 사는 마을로 오는 도중에도 남편은 길가에 서있는 드락포드를 보자 그냥 지나치지 않았다.

밀어 주십시오. 제 꼭 농사는

강성대국건설의 첨단기술을 한다는데 용약 턴원한

김정남동무와 그의 암에 한금

순은 농장에 일과를 하셨습니다.

그날 텔레차에서 내려 시누이네

가 사는 마을로 오는 도중에도 남편은 길가에 서있는 드락포드를 보자 그냥 지나치지 않았다.

밀어 주십시오. 제 꼭 농사는

강성대국건설의 첨단기술을 한다는데 용약 턴원한

김정남동무와 그의 암에 한금

순은 농장에 일과를 하셨습니다.

그날 텔레차에서 내려 시누이네

가 사는 마을로 오는 도중에도 남편은 길가에 서있는 드락포드를 보자 그냥 지나치지 않았다.

밀어 주십시오. 제 꼭 농사는

강성대국건설의 첨단기술을 한다는데 용약 턴원한

김정남동무와 그의 암에 한금

순은 농장에 일과를 하셨습니다.

그날 텔레차에서 내려 시누이네

가 사는 마을로 오는 도중에도 남편은 길가에 서있는 드락포드를 보자 그냥 지나치지 않았다.

밀어 주십시오. 제 꼭 농사는

강성대국건설의 첨단기술을 한다는데 용약 턴원한

김정남동무와 그의 암에 한금

순은 농장에 일과를 하셨습니다.

그날 텔레차에서 내려 시누이네

가 사는 마을로 오는 도중에도 남편은 길가에 서있는 드락포드를 보자 그냥 지나치지 않았다.

밀어 주십시오. 제 꼭 농사는

강성대국건설의 첨단기술을 한다는데 용약 턴원한

김정남동무와 그의 암에 한금

순은 농장에 일과를 하셨습니다.

그날 텔레차에서 내려 시누이네

가 사는 마을로 오는 도중에도 남편은 길가에 서있는 드락포드를 보자 그냥 지나치지 않았다.

밀어 주십시오. 제 꼭 농사는

강성대국건설의 첨단기술을 한다는데 용약 턴원한

김정남동무와 그의 암에 한금

순은 농장에 일과를 하셨습니다.

그날 텔레차에서 내려 시누이네

가 사는 마을로 오는 도중에도 남편은 길가에 서있는 드락포드를 보자 그냥 지나치지 않았다.

밀어 주십시오. 제 꼭 농사는

강성대국건설의 첨단기술을 한다는데 용약 턴원한

김정남동무와 그의 암에 한금

순은 농장에 일과를 하셨습니다.

그날 텔레차에서 내려 시누이네

가 사는 마을로 오는 도중에도 남편은 길가에 서있는 드락포드를 보자 그냥 지나치지 않았다.

# 《천안》호사건에 이어 감행된 연평도포격도발의 흑막을 폭로한다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검열단 진상공개장 (2)

우리 국방위원회 검열단은 지난 1월 12일 진상공개장(1)을 통하여 《천안》호사건이야말로 미군과 남조선역적포당이 날조한 민족사상초유의 특대형 모략극이라는 것을 과학적으로, 공명정대하게 온 세상에 폭로하였다.

그 이후에도 남조선의 전문가들이 《천안》호선체와 어찌부풀풀의 흡사물질형성과정을 주사구출현이으로 정밀분석하는 등 총 11 가지 실험을 진행하여 피뢰들의 조사결과를 전면 반박한 사실이 세상에 공개되었다.

린이어 합선침몰의 결정적물증으로 내놓았던 어찌주진체내부에서 풋모양의 흡사물질이 뿐인지는 조개껍질이 발견되어 이것이 1~2 달이 아니라 오랜 기간 바다물속에 있은것이라는 확고한 증거가 나타나자 피뢰국방부가 서둘러 그것을 폐버린 《조개껍질제거》사건이 터져 사람들의 손웃음만 차이였다.

그런가 하면 사고수습에 대한 수색에 동원되었던 장교가 미군잠수함구조작업중에 죽은것으로 확인되어 당시금 확대되고 있는 《천안》호와 미군잠수함충돌의혹》 등 날조극의 진상을 이루 헤아릴수 없을 정도로 파헤쳐지고 있다.

《천안》호사건의 《부관련설》에 대해 남조선주민의 70%이상이 혹을 품고있고 그 나머지도 불신하거나 반민반의하고있다는것은 이미 공개된 사실이다.

미국과 역적폐당이 우리 국방위원회 검열단을 밟아들이지 못하였으면 《천안》호사건과 혼란된 증거들을 판문점에 내다놓고서라도 공통으로

### 1. 연평도포격전의 실상

우리 나라 서해상에 위치하고 있는 연평도는 면적이 6.8km<sup>2</sup>, 둘레길이 약 18km밖에 안되는 자그마한 섬이다.

예로부터 물고기의 종류와 어획량에 있어서 선서해 그 어느곳보다 풍요로운 어장으로 유명하여 다른 나라 사람들도 부러워하면서 이 삶의 터전이 남조선피뢰호전방들에게 의하여 해병대와 포무리에게 점증배치된 북침전초기로 전변되었다.

수많은 타격장비를 연평도를 비롯한 조선서해 5개 섬에 휩집증강시킨 역적폐당은 이곳 수역에서 《북방한계선》고수를 위한 피뢰군포병 및 비행대사격계획을 꾸며미니 도발의 기회를 노렸으나 우리 군대의 초강경자세와 내외여론에 부딪쳐 좁처럼 실행할 수 없었다.

남조선전역에서 우리 공화국을 반대하는 《호국》총련이 광란적으로 벌어지고있던 지난해 1월 22일 피뢰함동방본부는 조선서해 연평도 주변해역에서 23일과 24일 이를 간에 걸쳐 우리측 행해수역을 목표로 포사격을 강행할 홍성을 꾸몄다.

우리 군대는 예민한 수역에서의 군사적충돌을 막고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1월 23일 8시 피뢰군부에 전화통지문을 보내였다.

통지문에는 우리측 명예에 대한 무모한 포사격계획을 즉시 철회하여 한다는 것, 만약 이 요구를 의연하는 경우 우리 군대의 단호한 물리적대응타격에 직면하게 될것이며 그로부터 되어야하는 모든 후파에 대해 남측이 전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염숙히 경고하는 내용이 들어있었다.

그러나 역적폐당은 끝끝내 연평도에 배치된 포무리를 동원하여 우리측 행해수에 불질을 해댔다.

연평도는 결국 우리에게 선불질을 가해온 군사적도발의 본거지로 되었으며 응당한 징벌을 피할수 없게 되었다.

평화적주민들의 삶의 터전이 아니라 철수철이 군사적도발의 본거지로 전변된 연평도의 피뢰군진역에 들썩운 무자비한 물리적대응타격은 조국의 자주권이 행사되는 행해, 평화, 평화를 끌끌민족이라도 건드린다면 그가 누구든 후속도 익서치 않는다는

### 2. 연평도포격 행위는 뿐만 깊은 세계적도발의 연장

연평도포격 행위는 조선전협정이 발표된 1953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세기를 이어오며 체계적으로 확대 강화되어온 군사적도발의 연장이다.

우리 공화국을 요람기에 압살해 보려던 3년간의 침략전쟁에서 대참배를 당하게 된 피뢰들은 조선전협정 체결을 향한 사과로 반대하고 《단독부진》을 떠들면서 정전협정을 폐기, 무효화하기 위해 각방으로 철遁하였다.

그것은 지리적으로 우리측 해안과 균접해 있고 정전협정체결지 해상구분선을 설정하지 못한 조선서해 5개 섬일대에서 집중으로 드러났다.

남조선피뢰들은 이 수역을 발판으로 삼고 평화적주민들에 대한 탐지와 살인, 우리측 지역에 대한 무장공격과 같은 범죄행위를 뛰어이 감행하면서 무모한 《단독부진》계획을 성사시켜보려고 평행하였다.

당시 이 수역에서의 군사적도발이 얼마나 임종했는가 하는것은 정전협정체결 이후 진행된 군사장전위

조사평가자는 우리의 대법하고 아랑있는 제의에 끝내 응해나오지 못하고있는 리유에 대하여서는 삼척동자도 알수 있을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적폐당은 이미 거미yle 날개로 날 《천안》호사건을 반공화국내에 악용해보려고 아직까지 생여지려는 것임도 우리에게 전가시켜보려고 밝히고있다.

2월 8일과 9일에 있는 북남고위급군사회담개회를 위한 예비회담과정에 우리측 면전에서 먼저 회당장을 뛰쳐나가고 상대가 일방적으로 희생한 후에 그 어느때보다 세차면 2002년에 또다시 이곳 수역에서 제2의 무장충돌을 일으켰다.

그후 해마다 계획적으로 우리측 해상경계선에 대한 침범을 확대하며 피뢰들은 2009년 3차 서해전개장을 향으로 침범하고자 저들이 군사적도발의 계획적 도주변수역을 복침전쟁도발의 전초

2척과 폐속정 20척, 땅크상황, 경비함, 보급선, 구조선 등 40여 척의 각종 전투함선들과 해병대무력까지 투입한 피뢰호전광들은 정상적인 경계근무를 수행하던 우리 함선들에 무작정 선제사격을 해왔다.

1차 서해교전을 전면전쟁의 도화선으로 만드는데 실제한 피뢰군은 조선반도에 회체와 후전광들은 조선반도에 회체와 단합의 열풍이 그 어느때보다 세차면 2002년에 또다시 이곳 수역에서 제2의 무장충돌을 일으켰다.

그후 해마다 계획적으로 우리측 해상경계선에 대한 침범을 확대하며 피뢰들은 2009년 3차 서해전개장을 향으로 침범하고자 저들이 군사적도발의 계획적

### 3. 연평도포격도발을 통해 추구한 역적폐당의 범죄적 기도

역적폐당의 연평도포격 행위는 《천안》호사건의 연장선에서 침행된 군사적도발이다.

지난해 3월 26일 무고한 사병들을 반공화국대결의 제물로 바치면서 조작한 《천안》호사건은 시간이 흐를수록 역적폐당에게 불리하게 번져갔다.

《북한전설》을 립증시키기 위해 두차례에 걸쳐 발표한 《조사결과》에 특별 형모각으로 놓인 피뢰를 무마해버리고 북남관계를 전쟁경계로 확장하는 행위를 허가하기 위해 무고한 선불질로 우리 군대에 직접적인 도발이다.

지난해를 대결과 충돌의 한해로 얼룩지게 한 역적폐당이 새해에 들어와서도 두 사건을 동족대결에 계속 속유하면서 현실기반의 막발을 연평도포격전은 북침도화선에 불을 무효화하고 이 수역을 영원히 대결과 충돌의 마당으로 만들어놓았는데 그 기도가 있다.

우리 국방위원회 검열단은 《천안》호사건을 날조한 피뢰를 무효화하고 이 수역을 영원히 대결과 충돌의 마당으로 만들어놓았는데 그 기도가 있다.

미국과 역적폐당은 《북방한계선》에 대한 판

결과 이 수역에서의 충돌과 분쟁의

시급성이 높았을것이라고 말할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미국과 역적폐당은 《북방한계선》에 대한 판

결과 이 수역에서의 충돌과 분쟁의

시급성이 높았을것이라고 말할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미국과 역적폐당은 《북방한계선》에 대한 판

결과 이 수역에서의 충돌과 분쟁의

시급성이 높았을것이라고 말할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미국과 역적폐당은 《북방한계선》에 대한 판

결과 이 수역에서의 충돌과 분쟁의

시급성이 높았을것이라고 말할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미국과 역적폐당은 《북방한계선》에 대한 판

결과 이 수역에서의 충돌과 분쟁의

시급성이 높았을것이라고 말할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미국과 역적폐당은 《북방한계선》에 대한 판

결과 이 수역에서의 충돌과 분쟁의

시급성이 높았을것이라고 말할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미국과 역적폐당은 《북방한계선》에 대한 판

결과 이 수역에서의 충돌과 분쟁의

시급성이 높았을것이라고 말할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미국과 역적폐당은 《북방한계선》에 대한 판

결과 이 수역에서의 충돌과 분쟁의

시급성이 높았을것이라고 말할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미국과 역적폐당은 《북방한계선》에 대한 판

결과 이 수역에서의 충돌과 분쟁의

시급성이 높았을것이라고 말할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미국과 역적폐당은 《북방한계선》에 대한 판

결과 이 수역에서의 충돌과 분쟁의

시급성이 높았을것이라고 말할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미국과 역적폐당은 《북방한계선》에 대한 판

결과 이 수역에서의 충돌과 분쟁의

시급성이 높았을것이라고 말할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미국과 역적폐당은 《북방한계선》에 대한 판

결과 이 수역에서의 충돌과 분쟁의

시급성이 높았을것이라고 말할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미국과 역적폐당은 《북방한계선》에 대한 판

결과 이 수역에서의 충돌과 분쟁의

시급성이 높았을것이라고 말할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미국과 역적폐당은 《북방한계선》에 대한 판

결과 이 수역에서의 충돌과 분쟁의

시급성이 높았을것이라고 말할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미국과 역적폐당은 《북방한계선》에 대한 판

결과 이 수역에서의 충돌과 분쟁의

시급성이 높았을것이라고 말할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미국과 역적폐당은 《북방한계선》에 대한 판

결과 이 수역에서의 충돌과 분쟁의

시급성이 높았을것이라고 말할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미국과 역적폐당은 《북방한계선》에 대한 판

결과 이 수역에서의 충돌과 분쟁의

시급성이 높았을것이라고 말할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미국과 역적폐당은 《북방한계선》에 대한 판

결과 이 수역에서의 충돌과 분쟁의

시급성이 높았을것이라고 말할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미국과 역적폐당은 《북방한계선》에 대한 판

결과 이 수역에서의 충돌과 분쟁의

시급성이 높았을것이라고 말할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미국과 역적폐당은 《북방한계선》에 대한 판

결과 이 수역에서의 충돌과 분쟁의

시급성이 높았을것이라고 말할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미국과 역적폐당은 《북방한계선》에 대한 판

결과 이 수역에서의 충돌과 분쟁의

시급성이 높았을것이라고 말할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미국과 역적폐당은 《북방한계선》에 대한 판

결과 이 수역에서의 충돌과 분쟁의

시급성이 높았을것이라고 말할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미국과 역적폐당은 《북방한계선》에 대한 판

결과 이 수역에서의 충돌과 분쟁의

시급성이 높았을것이라고 말할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미국과 역적폐당은 《북방한계선》에 대한 판

결과 이 수역에서의 충돌과 분쟁의

시급성이 높았을것이라고 말할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미국과 역적폐당은 《북방한계선》에 대한 판

결과 이 수역에서의 충돌과 분쟁의

시급성이 높았을것이라고 말할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 더 이상 회피하지 말아야 할 일본의 과거청산책임

일본은 과거청산을 지금껏 미루어오고 있다. 이것은 인류도덕에도 심히 어긋나며 국제판례발전에도 저해되는 그릇된 행위였다.

최근 일본정부와 언론들속에서 조일판례개선을 위한 대화의 필요성에 대한 소리들이 자주 나오고 있다.

비정상적인 조일판례가 두 나라 인민들의 지향과 요구에 맞게 개선되면서 선차적으로 과거청산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 과거청산은 조일판례개선의 주제이며 출발점이다. 일본이 과거청산을 계속 회피한다면 비정상적인 조일판례는 언제 가도 풀릴수 없다.

지난 세기 전반기 일본이 우리 나라에서 저지른 죄악은 역사적으로 찾아보기 힘든 특대형범죄였다.

지난 세기초 우리 나라를 군사적으로 강점한 일본은 그 반세기에 걸쳐는 가혹한 식민지 콤험기 100여년의 조선인들을 학살하고 20만명의 조선인들을 일본군 「위안부」로 끌어다가 성노에로 만든 천추에 용납 못할 만행을 저질렀다.

제국주의 침략력을 사를 더듬어보아도 일본과 같은 나라들을 자기나라 군대의 동물적욕망과 침략력을 부릴수 있는 성노에로 만든 범죄국가는 없었다. 이것은 우리 나라에서 강행한 일제의 죄행이 오갖 반인륜적범죄로 악명을 떨친 다른 제국주의 침략자들의 만행을 통과한다는 것을 말해준다.

일제는 중일전쟁 발발 이후 만도 8·4 0만여명에 달하는 조선인장을 끌어다가 성노에로 만든 천추에 용납 못할 만행을 저질렀다.

지난해 일제의 조선인 강제징용실태를 보여주는 새로운 자료가 일본정부에 의해 공식 확인되었다. 그 자료는

일제의 우리 나라 강점시기 일본의 군수기업체들과 탄광 등에 끌려가 혹사당하다가 현지에서 사망한 조선인 강제징용자 5600여명에 대한 것이다.

이것은 일제의 조선인 강제징용실태의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당시 강제로동에 시달리는 조선인들은 그들의 참혹한 모습을 목격한 한 일본인은 「조선인들은 노예들이 있다. 그에 비하면 죄인은 도리어 평안하였다.」

일차를 두드려 미는 데에는 통동이 감돌아 따라와서 뛰지 않으면 허리를 했다. 나는 말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말도 그렇게까지 부리지 않았다.」라고 증언하였다.

일제가 우리 인민에게 저지른 모든 만행자료들은 그들의 근본목적이 조선인족지배를 세계민족구성단에서 지워버리고 조선인은 나라를 지구에서 지나 영영 없어 버려리는데 있었다는 것을 실증해주고 있다.

일제의 죄악은 절대로 시효가 적용될 수 없는 반인륜적범죄이다. 이런 청난 죄를 그대로 묵여둔채 조일판례를 개선한다는 것은 말도 되지 않는다.

과거청산을 계속 회피하면 할수록 일본에 불리하게 된다.

과거청산을 한사코 회피하는 일본은

대한 국제적압력이 날로 강해지고 있다.

이미 유태인, 카나다, 미국 등 세계 여러 나라 국회들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비롯하여 일본의 과거전쟁범죄

당시의 조선인 학살만행에 대한 책임을 인정, 사죄하고 필요한 배상조치를 취하며 희생자들과 그 유가족들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학살사건의 조사결과와 자료를 공개할 것을 요구하는 활동을 벌여나가는 것을 자신의 기본임무로 삼고있다.

일본정부에서도 과거청산을 해야 한

행을 꼭로단죄하며 일본으로부터 사죄와 배상을 받아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이 울려나오고 있다.

지난해 일본국가공안위원회는 국회 참의원의 한 회의에서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들에게 보상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전 일본군 「위안부」 들에게 「명예와 존엄을 회복시키는 조치를 뚜렷이 취하고 싶다.」고 말하였다.

이것은 바로 일본의 민심이다. 이런 민심의 흐름이 날이 갈수록 거세어지리라는 것은 명백하다. 일본당국이 과거청산을 요구하는 자기 나라의 민심을 겨우겨우 끌어모아온다는 점은 점점 위기에 보다 깊이 빠져들수 있다.

현시기 국제무대를 살펴보아도 과거에 반인륜적범죄를 저질렀던 나라들이 지난날의 죄과를 반성하고 깨끗이 청산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

도이췰란드는 그준한 노력으로 제1차 세계대전시기의 배상금지불을 완료하였다. 도이췰란드는 이 배상금지불을 수십년동안 꾸준히 해왔다. 그리고 제2차 세계대전시기의 배상금지불도 성실하게 해왔다.

도이췰란드의 이러한 자세와 태도를 보면서 국제사회는 일본의 탕상과 도의에 대하여 생각해보면 도리적이다.

지난해 도이췰란드와 같은 전범국가를 일본이 과거청산을 원하고자 회피하는 것은 그들특유의 도덕적자치령성과 파렴치성, 고약성을 여실히 드러내보여준다.

일본국내에서도 과거청산을 회피하는 일본당국에 계속 압력을 가하는 움직임들이 활발해지고 있다.

지난해 일본의 탕상적인 인사들과 시민들이 「간포대지진 조선인 학살의 국가책임을 묻는 회」를 결성하였다.

이 단체는 일본정부가 간포대지진 발생 당시의 조선인 학살만행에 대한 책임을 인정, 사죄하고 필요한 배상조치를 취하며 희생자들과 그 유가족들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학살사건의 조사결과와 자료를 공개할 것을 요구하는 활동을 벌여나가는 것을 자신의 기본임무로 삼고있다.

일본정부에서도 과거청산을 해야 한

리경수

2월의 명절에 즈음하여 로씨야, 인디아인들이 위대한 평도자 김정일동지를 위하여 모시고 특집하였다.

로씨야인들은 「쁘리아무르스끼에 웨도모스찌」 14일부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평도자 김정일동지께서 탄생하신 2월 16일은 조선인민의 민족적 명절」, 「지키며 승리」 등의 제목으로 경애하는 장군님의 위대성을 세계하는 글들을 제작하였다. 신문은 글들에서 위대한 한 사람에게 헌신적인 혁명활동에 의하여 경제건설의 보물 분야에서 일대 비약이 일어나고 있는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몽골 다르한 울도 김정일원수는 그의 날짜 날들에는 생신날이 따로 없다고 하면서 사설자료들을 펼쳐하였다.

2월의 명절에 즈음하여 도이췰란드공산당, 2. 16 경축 오스트리아준비위원회에서는

도이췰란드의 이러한 자세와 태도를 보면서 국제사회는 일본의 탕상과 도의에 대하여 생각해보면 도리적이다.

지난해 도이췰란드와 같은 전범국가를 일본이 과거청산을 원하고자 회피하는 것은 그들특유의 도덕적자치령성과 파렴치성, 고약성을 여실히 드러내보여준다.

일본인은 전진으로 조일관계개선을 바란다면 그리고 세상사람들의 신뢰를 얹고 국제사회 한 성원으로 머리를 틀고 멀리 떠나는 삶이 가능해지는 과거청산을 한시바삐 하여야 한다. 여기에 일본의 전도가 있다.

각급 당위원회와 정부들은 새로운 정세하에서 사회판리사

## 인민적령도자

## 귀감

해시키기 위해 책동하고 있으나 조선은 조금도 끄떡하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더욱 강화되고 있다.

김정일동지를 위하여 평도자로 모시고 있는 조선인민은 앞으로 더 큰 성과를 거둘것이라고 강조하였다. 같은 날 인디아인들은 「인디안 앤드 월드 이벤트」는 「위대한 평도자 김정일동지의 헌신을 즐기며 즐거워하는」라는 표제

밀에 「조선의 일심단결」, 「김정일동지의 글들을 읽고 편집하였다. 신문은 「김정일 평도자 그 이의 탄생일」이라는 제목으로

태생일에 즐기며 즐거워하는」라는 표제

밀에 「조선의 일심단결」, 「김정일동지의 글들을 읽고 편집하였다. 신문은 「김정일 평도자 그 이의 탄생일」이라는 제목으로

태생일에 즐기며 즐거워하는」라는 표제

밀에 「조선의 일심단결」, 「김정일동지의 글들을 읽고 편집하였다. 신문은 「김정일 평도자 그 이의 탄생일」이라는 제목으로

태생일에 즐기며 즐거워하는」라는 표제

밀에 「조선의 일심단결」, 「김정일동지의 글들을 읽고 편집하였다. 신문은 「김정일 평도자 그 이의 탄생일」이라는 제목으로

태생일에 즐기며 즐거워하는」라는 표제

밀에 「조선의 일심단결」, 「김정일동지의 글들을 읽고 편집하였다. 신문은 「김정일 평도자 그 이의 탄생일」이라는 제목으로

태생일에 즐기며 즐거워하는」라는 표제

밀에 「조선의 일심단결」, 「김정일동지의 글들을 읽고 편집하였다. 신문은 「김정일 평도자 그 이의 탄생일」이라는 제목으로

태생일에 즐기며 즐거워하는」라는 표제

밀에 「조선의 일심단결」, 「김정일동지의 글들을 읽고 편집하였다. 신문은 「김정일 평도자 그 이의 탄생일」이라는 제목으로

태생일에 즐기며 즐거워하는」라는 표제

밀에 「조선의 일심단결」, 「김정일동지의 글들을 읽고 편집하였다. 신문은 「김정일 평도자 그 이의 탄생일」이라는 제목으로

태생일에 즐기며 즐거워하는」라는 표제

밀에 「조선의 일심단결」, 「김정일동지의 글들을 읽고 편집하였다. 신문은 「김정일 평도자 그 이의 탄생일」이라는 제목으로

태생일에 즐기며 즐거워하는」라는 표제

밀에 「조선의 일심단결」, 「김정일동지의 글들을 읽고 편집하였다. 신문은 「김정일 평도자 그 이의 탄생일」이라는 제목으로

태생일에 즐기며 즐거워하는」라는 표제

밀에 「조선의 일심단결」, 「김정일동지의 글들을 읽고 편집하였다. 신문은 「김정일 평도자 그 이의 탄생일」이라는 제목으로

태생일에 즐기며 즐거워하는」라는 표제

밀에 「조선의 일심단결」, 「김정일동지의 글들을 읽고 편집하였다. 신문은 「김정일 평도자 그 이의 탄생일」이라는 제목으로

태생일에 즐기며 즐거워하는」라는 표제

밀에 「조선의 일심단결」, 「김정일동지의 글들을 읽고 편집하였다. 신문은 「김정일 평도자 그 이의 탄생일」이라는 제목으로

태생일에 즐기며 즐거워하는」라는 표제

밀에 「조선의 일심단결」, 「김정일동지의 글들을 읽고 편집하였다. 신문은 「김정일 평도자 그 이의 탄생일」이라는 제목으로

태생일에 즐기며 즐거워하는」라는 표제

밀에 「조선의 일심단결」, 「김정일동지의 글들을 읽고 편집하였다. 신문은 「김정일 평도자 그 이의 탄생일」이라는 제목으로

태생일에 즐기며 즐거워하는」라는 표제

밀에 「조선의 일심단결」, 「김정일동지의 글들을 읽고 편집하였다. 신문은 「김정일 평도자 그 이의 탄생일」이라는 제목으로

태생일에 즐기며 즐거워하는」라는 표제

밀에 「조선의 일심단결」, 「김정일동지의 글들을 읽고 편집하였다. 신문은 「김정일 평도자 그 이의 탄생일」이라는 제목으로

태생일에 즐기며 즐거워하는」라는 표제

밀에 「조선의 일심단결」, 「김정일동지의 글들을 읽고 편집하였다. 신문은 「김정일 평도자 그 이의 탄생일」이라는 제목으로

태생일에 즐기며 즐거워하는」라는 표제

밀에 「조선의 일심단결」, 「김정일동지의 글들을 읽고 편집하였다. 신문은 「김정일 평도자 그 이의 탄생일」이라는 제목으로

태생일에 즐기며 즐거워하는」라는 표제

밀에 「조선의 일심단결」, 「김정일동지의 글들을 읽고 편집하였다. 신문은 「김정일 평도자 그 이의 탄생일」이라는 제목으로

태생일에 즐기며 즐거워하는」라는 표제

밀에 「조선의 일심단결」, 「김정일동지의 글들을 읽고 편집하였다. 신문은 「김정일 평도자 그 이의 탄생일」이라는 제목으로

태생일에 즐기며 즐거워하는」라는 표제

밀에 「조선의 일심단결」, 「김정일동지의 글들을 읽고 편집하였다. 신문은 「김정일 평도자 그 이의 탄생일」이라는 제목으로

태생일에 즐기며 즐거워하는」라는 표제

밀에 「조선의 일심단결」, 「김정일동지의 글들을 읽고 편집하였다. 신문은 「김정일 평도자 그 이의 탄생일」이라는 제목으로

태생일에 즐기며 즐거워하는」라는 표제

밀에 「조선의 일심단결」, 「김정일동지의 글들을 읽고 편집하였다. 신문은 「김정일 평도자 그 이의 탄생일」이라는 제목으로

태생일에 즐기며 즐거워하는」라는 표제

밀에 「조선의 일심단결」, 「김정일동지의 글들을 읽고 편집하였다. 신문은 「김정일 평도자 그 이의 탄생일」이라는 제목으로

태생일에 즐기며 즐거워하는」라는 표제

밀에 「조선의 일심단결」, 「김정일동지의 글들을 읽고 편집하였다. 신문은 「김정일 평도자 그 이의 탄생일」이라는 제목으로

태생일에 즐기며 즐거워하는」라는 표제

밀에 「조선의 일심단결」, 「김정일동지의 글들을 읽고 편집하였다. 신문은 「김정일 평도자 그 이의 탄생일」이라는 제목으로

태생일에 즐기며 즐거워하는」라는 표제

밀에 「조선의 일심단결」, 「김정일동지의 글들을 읽고 편집하였다. 신문은 「김정일 평도자 그 이의 탄생일」이라는 제목으로

태생일에 즐기며 즐거워하는」라는 표제